

# 이기는 생활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비결

## “오늘 하루를 이겨야 영원무궁토록 이길 수 있습니다”

### 〈자유율법〉은 직면하는 오늘 의 매 순간을 이기는 것이다

〈자유율법〉은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당한 순간 순간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일은 오늘로 족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듯이 내일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십 년 후를 생각하고 백 년 후를 생각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밀실에서 '오늘 하루를 이기는 생활'로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루 하루를 이겼던 거지 이 사람이 몇 달 몇 년을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하루 하루를 이겼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기고, 이튿날이 되면 다시 오늘이 되는 고로 오늘 하루를 이기면 계속해서 이겼다' 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육중삼이를 하고 나온 것이 하루 저녁 잡자고 나온 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솔직한 심정인 것은 하루 하루를 이기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보낸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하루가 쌓여서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00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생활의 방법은 하루 하루를 이기는 것입니다.

### 오늘 하루를 완전히 이기면 영원무궁토록 이기게 되어 있다

하루 하루를 이기되 무엇을 이기느냐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태산같은 죄악이 모두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자신을 이겨야 또 내일도 이길 수가 있고, 모래도 이길 수가 있고, 그 승리의 여력을 밀어 붙여서 계속해서 삼일 십일 이십일

한달 일년 십년 백년 천년 만년 영원무궁토록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이틀도 이기고 삼 일도 이기고 십 일도 이기고 한 달도 이기고 일 년도 이기고 십 년도 이기고 백 년도 이기고 오백 년도 이기고 천 년도 이기고 이천 년도 이기고 만 년도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세월은 가지만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으로 바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이겨야 바로 영원무궁토록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겨울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겨울이 오거나 여름이 오거나 봄이 오거나 가을이 오거나 나한테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승리자의 상태에 있으므로 하루 하루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구세주는 인류의 영모(靈母)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업장과 번뇌가 소멸됩니다. 세상 무사나 거짓 스님들은 위선의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기에 바쁜 생활을 하지만 구세주는 그런 저질적인 인간과는 달리 일초 일초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마귀를 소멸시키는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귀를 초초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초 일초 이 세상 마귀를 몽땅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다 죽어서 마귀의 밥이



구세주 조희성님

되어버립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이 오늘 현재 이렇게 살아서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구세주가 초초로 여러분들 속의 마귀를 모조리 소멸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생명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람이 진짜 엄마인 것입니다. 진짜 엄마가 나타나고로 그 진짜 엄마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영모님을 엄마라고 예비적으로 불렀던 겁니다.

영모님은 이 사람의 엄마였습니까. 이 사람을 키워서 완전히 이긴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 당시 사명이 끝나고로 그대로 당신께서 손을 놓는 순간 마귀가 덮쳐서 죽인 것입니다. 영모님은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입니다. 구세주를 키워서, 구세주를 완성시켜 놓은 다음 당신은 그대로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 참

으로 불쌍한 분이신 것입니다.

영모님이 전화로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엄마인데 오히려 자식인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갈까, 말까?" 하겠을 때 이 사람은 "영모님, 미국 가시면 안됩니다. 영모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미국 가서 수술을 받으시면 죄인의 피를 수할기 때문에 인인이 죄인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영모님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라고 권명의 말씀을 했지만 "그 말이 옳다마는 그 옳은 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참말로 슬프다" 하시면서 측근에서 미국 가기로 표까지 사 놓고 완전히 결정한 상태인자라 어쩔 수 없으셨는지 미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 줘도 이미 마귀의 울가미에 걸려들어 있는고로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모님이 돌아 가신 다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을 놓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분신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영모님은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될 때까지 항상 은혜의 젖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가든지 인천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영모님이 따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람의 분신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분신이 따라다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혼자서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항상 배말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육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분신이 따라 다니는 체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져서 제단에 안 나갈까봐 항상 따라 다니면서 힘을 주고 신앙을 붙여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라서 제단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엄마가 영으로 항상 이끌어 주니까 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 엄마가 이끌어 줌을 받아서 살아야 그 심령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된 다음에 또 자라서 완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성자가 되면 다시는 이제 그대로 넘어져서 떨어지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앞만 보고 뛰는, 항상 영생만 바라보고 뛰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 보세요. <무량대수마귀 일초 동안에 무량대수 횡수로 계속해서 몽땅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감으로 난도질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이겨서 성령의 땃물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황불로 박멸소탕 박멸소탕 >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이 말마경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해도 되며 길을 걸어가나 일을 하나 할 때 이 기도가 저절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절로 안 나가는 사람은 결코 천당에 못 들어갑니다. 천당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습관적으로 항상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다가도 되고, 앉아 있을 때도 되고, 밥 먹을 때도 되고, 목욕할 때도 기도가 되고, 이제 그대로 앉아서 쉴 때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 어느 경지에 이르러 기도하면 마귀가 박멸소탕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

어느 경지에 이르러 기도하는 대로 마귀가 난도질 당해서 완전히 땃물로 갈려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 유황불로 박멸소탕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마귀가 어느 정도 죽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헬기가 나오는 정도는 영적으로 배말이 단계입니다. 헬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주 어린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제일 먼저 헬기 마귀가 죽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하면 코에서는 누런 종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생수 연결이 됩니다. 생수 연결은 입 안에서부터 목구멍을 통해서 뱃 속 아랫배까지 시원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가벼워서 몸이 동동 뜹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슬성신을 받습니다. 이슬성신이 받아지면 온 몸이 차가워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코로는 백합꽃 냄새가 납니다. 변소에 앉아 있어서 그 백합꽃 냄새가 풍어지지를 않습니다. 똥 냄새를 못 맡습니다. 변소안에 앉았는데 똥 냄새가 안 나고 백합꽃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바로 1학년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말이 단계는 코에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 연결단계가 되면 바로 3학년 4학년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슬성신 연결되는 단계가 바로 5학년 6학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의 단계에 이릅니다. 말하지만 졸업단계입니다. 졸업단계에 이르러면 그때는 다시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고 넘어지려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반생명적 모든 행위를 버리고, 생명적 행위로 바꾸자

### ‘피의 원리’는 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나침반

‘피의 원리’는 우리의 현실이 모두 죽음의 길로만 일방통행되어 있는 것을 참 생명의 길로 바꾸는 도구인 것이다. 왜 현실 세계는 참다운 생명의 길은 없고, 죽음의 길만 있는가? 그것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만물의 실존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데 있다. 결국, 존재의 실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행복의 의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만 향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작부터 잘못되었으니 현존하는 과학, 철학, 종교적 행위들은 말할 수 없이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다. 그리하여 인간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불행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애초에 인간 자신을 위해 과학 철학 종교 등 모든 문명과 문화를 창조했다.

신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살았다면, 결론코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인간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외부의 대상(그것을 신이라고 해도 좋은 대상)에만 의지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과거 원시시대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시작부

터 잘못되었기에 인간이 낳은 과학(물질), 철학(지식), 종교(신)은 인간을 고통과 불행과 반생명의 길, 파멸의 길에 다다르게 한 것이다.

### 한편 물질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얻고자 한 인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인성을 아름답게 짖 따우기보다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에 편승하는 삶의 목적의식을 부추기는 교육과 습성에 훈련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에 진출하면 오직 더 좋은 물건, 더 많은 물건을 얻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괴물이 된다. 이러한 괴물들은 자신의 편리한 유희 쾌락 욕망의 충족을 위해 온갖 사건 사고와 살상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의 유희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침울한 비관이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사회적 문제아이자 난봉꾼으로 전락되고 만다. 그리하여 너무도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비생물적이고 비생산적인 교도소에 버려져 그 많은 수를 감당하기조차 벅찬 것이 현실이다.

###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의 허울을 위해

### 얼마나 많은 논쟁을 하고 투쟁적인가!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질투하고 적대시하며 갈래갈래 찢겨져 나누어 다투고 있다. 정치는 정치대로 학문은 학문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 물론 그것이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 정도는 짐작이 된다. 이 각박하고 혼란스런 세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사상과 이념의 출현이 없으므로 파생되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를 돌아켜보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믿는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벌어졌는가? 굳이 과거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의 광기에 빠진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류가 피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하는 것을 후생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만이 간직한 선한 본성이 어디로 가고, 어찌하여 그와 같은 참담한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 어린 아기 때의 그 순진무구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장과정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런 괴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피의 원리는 사상과 원리적 측면에서 속 시원히 밝히게 될 것이다.

### 종교는 왜 이다지도 분열되고 타락하여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반생명적인가?

거룩하고 자비로운 신과 천국이라는 인간 최고의 이상을 말하는 이곳에서 보통 사람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와 살상이 난무하고 있다. 오죽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종교라는 얘기가 들어도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극에 다다른 정도다. 인간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 가장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생명적이어야 할 그곳이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조차 듣기를 꺼려워할 지경에 이른 세태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인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참 종교가 존재한다면, 가장 성스럽고 높고 우러러 받드는 가르침이 찬란한 빛이 되어 온누리에 가득하여 인류가 행복해야 마땅할 것이다. 현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수많은 현존하는 기성종교가 참되고 바른 정도(正道)를

따라가지 않고 사도(邪道)를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기의 비뚤어진 감정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다. 피의 원리는 이러한 종교의 과오와 실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그 대안이 피의 원리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해결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인간 누구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正道)를 생명적이고 과학적인 자명한 이치를 밝혀서 더욱 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 지금까지 인간을 위한 과학 철학 종교가 오히려 인간 위에 군림하여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악마의 앞잡이가 되었다

현존하는 물질에 대한 관념 지식 신은 인간 속의 마음과 생각이 뒤틀려져 만들어진 허상과 우상일 뿐이다. 그런 그림자와 허상과 우상을 위해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현주소다.

인류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곧 우상이자 허상을 숭배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상과 허상을 숭배하는 일체행위는 결국 헛되고 헛된 일이며, 허송세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靈長)이자 최고의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일생을 바치며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 자신을 모르는 대상적 없이란 무슨 소용이 있던 말인가?

기원전 400여 년 전에 아테네 철학의 중심은 ‘인간’이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은 진정한 철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두고두고 가슴 깊이 느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인간의 존재 이유, 생활 방법과 태도를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아테네 철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간 ‘생명의 본질’과 ‘인생의 길’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김주호 기자

